

動向分析

要 約

▷ 주요 목차 ◀

- I. 勞動市場
- II. 勞使關係

I. 勞動市場

○ 雇 傭

1993년 1/4분기
 경제성장률 3.3%
 제조업 성장률 1.4%
 1993년 2/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 4.7%

1993년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고정투자 감소와 내수부진 등으로 전년동기의 7.4%보다 4.1%포인트 하락한 3.3%를 시현하였다.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1.4%로서 더욱 저조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중화학공업은 자동차, 철강, 선박, 화학제품 등의 수출증가로 4.6% 성장한 반면 섬유, 의복, 신발 등 경공업 부문은 내수둔화와 국제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성장률이 5.4% 감소를 기록하여 제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1993년 2/4분기에 도매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7%, 소비자물가는 4.7%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동기보다 각각 0.8%포인트, 2.5%포인트 하락한 결과로 안정성장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감속성장의 결과로 1993년도에는 전반적인 인력부족이 완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여 노사관계에서 고용안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1993년 1/4분기
경제활동인구 1.2% 증가
취업자 0.8% 증가
실업률 3.2%

1993년 1/4분기에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하고 취업자는 0.8% 증가한 결과 실업률은 3.2%로 나타나 지난 동기대비 0.3%포인트 상승하였다. 1993년 1/4분기중 노동시장은 경제의 전반적인 감속성장에 따라 노동수요 증가율이 둔화되어 실업자가 전년동기 12.3% 증가되어 고용안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1993년 1/4분기에는 경제활동인구의 구성상 여성화·고령화 추세가 반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20~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대비 1.0% 증가에 그쳐 증가율이 전년 동기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는 주로 경공업부문에서의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5~54세의 핵심 노동력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에 비해 2.3% 증가하여 안정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연령계층의 경제활동 증가는 남성이 주도하고 있으며 여성은 단기적 등락이 심해 부차적 노동력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5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한 데 그쳐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가 반전되었다. 이는 부차적인 노동력을 형성하는 이 연령계층에서 경기부진으로 실망노동자효과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1993년 1/4분기의 연령별 실업자 동향을 보면 15~19세가 14.8%, 20~24세가 9.5%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7%포인트, 1.2%포인트 증가하여 신규노동시장 진입자의 취업애로가 확대되고 있어 비진학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의 확충이나 청소년 직업안정센터 설치 등 적극적인 직업안정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1993년 1/4분기
산업별 취업자
제조업 6.4% 감소
건설업 3.2% 증가
서비스업 4.8% 증가

1993년 1/4분기의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동향을 보면 제조업은 1991년 4/4분기에 시작된 취업자 절대수 감소추세가 더욱 확산되어 전년동기대비 6.4%나 감소하여 全産業 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25%로 하락하였다. 이는 주로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고용감소의 결과이다. 한편 건설업은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효과로 고용증가 추세가 크게 안정되어 전년동기대비 3.2% 증가에 그친 반면, 서비스업은 내수경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전년대비 4.8% 증가하여 전년동기의 증가율 5.9% 보다는 약간 낮아졌으나 전반적으로 제조업

에서 서비스부문의 노동이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3년 1/4분기
직종별 취업자
생산직 5.2% 감소
서비스직 6.8% 증가

1993년 1/4분기의 직종대분류 취업자 동향을 보면 민간소비 지출이 안정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판매·서비스직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전문·기술·행정관리직과 사무직 역시 전년동기대비 각각 3.6%, 5.6% 증가하여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 및 소프트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직의 경우 제조업 및 건설업의 성장률 둔화를 반영하여 전년동기의 0.7% 감소에 이어 5.2% 감소하여 생산직 감소현상이 심화되었다.

1993년 1/4분기
고용형태
상시고 1.0% 증가
일고 10.2% 감소
비임금근로자 3.3% 증가

1993년 1/4분기의 비농부문 고용형태변화를 살펴보면 상시고는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한 반면 일고는 10.2% 감소하여 노동시장의 고용안정률이 1990년 2/4분기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이는 경기부진으로 한계근로자계층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시고는 전년동기의 증가율 3.3%보다 증가율이 크게 낮아져 제조업 생산직 감소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비농부문 비임금근로자 증가율 3.3%는 임금근로자 증가율의 세배 수준으로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빠른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 賃 金

1993년 1/4분기
정액급여 654천원
초과급여 84천원
특별급여 179천원
임금총액 918천원

1993년 1/4분기중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2.9% 상승한 918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동기의 상승률 21.0% 보다 8.1%포인트나 감소한 것인데 주로 초과급여의 낮은 상승에 기인한 결과이다. 그러나 매년 임금교섭이 2/4분기와 3/4분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1/4분기의 임금상승 결과는 단지 전년도의 임금상승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액급여는 14.4% 상승하여 지난해 임금교섭, 자연승급, 고용조정 등으로 시현된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13~14%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초과급여는 전년동기대비 3.1% 증가에 머물러 전년동기의 15.6% 상승에 비해 매우 낮은 상승률을 시현하였다. 초과급여 상승률

이 평균보다 크게 낮은 이유는 경기부진으로 초과근로 수요가 감소되었고 또한 고임금 추세가 계속되면서 사용자는 초과근로를 되도록 억제하는 한편 생산직근로자 역시 소득상승효과로 초과근로를 기피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993년 1/4분기
산업별 임금
제조업 11.5% 상승
건설업 15.0% 상승
전기·가스·수도업
7.1% 상승

1993년 1/4분기중 산업대분류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제조업은 전년의 21.3%에서 9.8%포인트나 하락한 11.5%를 시현하여 증가추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건설업 임금상승률 역시 전년 동기보다 6.3%포인트 낮아진 15.0%로서 1991년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 진정대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부분이 공공부문인 전기·가스·수도업의 경우 임금상승률이 전년동기보다 8.0%포인트 하락한 7.1%를 시현하여 총액임금정책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3년 1/4분기
제조업 직종별 임금
생산직 12.2% 상승
사무직 9.7% 상승

1993년 1/4분기의 제조업부문 직종별 임금은 생산직이 734천원, 사무직이 977천원이고 상승률은 각각 12.2%, 9.7%를 시현하였고 생산직·사무직 임금비율은 75.1%로서 전년동기의 상대임금비율 73.4%에 비해 직종간 상대임금격차의 완화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생산직의 인력부족현상에 따른 노동시장적 요인과 노동운동이 생산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사관계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993년 1/4분기
규모별 임금
사업체규모간
임금격차 축소

1993년 1/4분기의 규모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10~29인 규모의 영세기업은 18.7%이고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12.7%로 나타나 1992년 2/4분기 이후 규모간 임금격차 완화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총액임금정책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세기업의 인력부족이라는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 勤勞時間

1993년 1/4분기
 월근로시간
 전산업 197.0시간
 정상근로 1.1% 감소
 초과근로 6.9% 감소

1993년 1/4분기중 월평균 근로시간은 197.0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3.7시간이나 감소하여 우리 경제가 1993년을 기점으로 200시간 이하 근로시대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시간 감소는 대부분 초과근로시간의 6.9% 감소에 기인하는데 이는 경기부진, 수요측면의 대체효과 및 공급측면의 소득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90년 10월 이후 300인 이상 기업의 법정근로시간 단축효과가 전산업으로 파급되고 있고 감속성장으로 고용을 늘리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기업의 경영전략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당근로시간은 전산업평균이 45.4시간, 제조업은 46.6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II. 勞使關係

○ 賃金交渉

1993년 6월말 현재
 교섭진도율 59.5%
 타결임금인상률 4.77%

1993년 6월말 현재 4,929개 임금교섭 대상업체 중 2,931개소가 임금교섭을 마무리하여 교섭진도율은 59.5%로 나타나 전년과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타결임금인상률은 4.77%로서 전년동기의 6.91%보다 2.14%포인트 낮아져 임금안정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482개 임금선도부문의 임금교섭은 진도율이 50.8%로서 전년보다 부진하나 타결임금인상률은 3.22%로서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올해의 임금안정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勞使紛糾

1993년 6월말 현재
분규건수 68건
해결건수 53건
쟁의발생신고건수
39.1% 감소

1993년 6월말 현재 노사분규는 총 68건이 발생하여 53건이 해결되었고 15건이 진행중이다. 노사분규건수는 전년동기대비 78건이 감소하여 53.4%의 감소율을 보여 안정적 노사관계가 전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다. 분규의 선행지표인 쟁의발생신고는 6월말 현재 49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9.1% 감소하였다. 한편 쟁의전이율은 13.7%로 전년동기 17.9%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올초 체불임금관련 분규가 두드러지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993년 6월말 현재 노사분규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임금 인상 44.1%, 단체협약 32.3%, 체불임금 11.8% 순으로 나타나는데 전년동기에 비해 단체협약관련 분규가 급증한 것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 勞動組合

1992년 노동조합
조합수 7,527개
조합원수 1,735천명
조직률 18.5%
평균조합원수 230명

1992년 12월말 기준으로 노동조합수는 7,527개소로 1991년 말보다 129개소 감소(1.7%)하였고, 조합원수는 1,734,598명으로 전년말보다 69천명 감소(3.8%)하였다. 그 결과 조직률은 비농가 상시고 기준으로 1989년의 23.4%를 정점으로 1990년 21.7%, 1991년 19.8%, 1992년 18.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주로 노동조합의 조직기반인 제조업 상용근로자의 감소추세 때문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유연 고용전략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미흡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1992년에 조합수 감소폭보다 조합원수 감소폭이 훨씬 커서 단위노조당 평균조합원수는 230명으로 1987년 6월의 383명을 정점으로 한 평균조합원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근로자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조직률이 80%를 넘어서서 신규조합이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조직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공업부문의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고용감소 때문이기도 하다.